

11월 둘째 주 (11.6-11.12)

[거시] OECD, 2016년 한국경제 3.1% 성장 전망

[금융] 한국은행, 다섯 달째 기준금리 동결

[산업] TPP 협정문 공개,

각 경제주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한 검토 필요

[지역경제] 제주시 제2공항 사전검토결과 발표

□ [거시] OECD, 2016년 한국경제 3.1% 성장 전망

- 11.9. OECD, 「경제전망보고서(OECD Economic Outlook)」 2015년 이슈 2를 발간
 - 지난 6월에 발간된 2015년 이슈 1에 이어 이슈 2의 예비판(Preliminary Version)을 발표
- 주요 내용
 - 2015년 한국경제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과 함께 수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지역인 중국 및 여타 아시아국가들의 수입수요 감소로 인해 GDP 성장이 둔화되었으나 2016년부터는 민간소비 증가를 중심으로 3.1%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함

OECD 한국경제 전망치 (단위: %)

	2015년 전망치			2016년 전망치		
	6월 전망	11월 전망	차이(%p)	6월 전망	11월 전망	차이(%p)
GDP 성장률	3.0	2.7	-0.3	3.6	3.1	-0.5
민간소비 증가율	2.3	2.1	-0.2	2.8	2.9	0.1
정부지출 증가율	3.2	3.6	0.4	4.0	2.8	-1.2
투자 증가율	3.2	3.6	0.4	4.4	4.0	-0.4
총국내수요	3.5	4.0	0.5	3.5	3.4	-0.1
수출 증가율	1.7	0.2	-1.5	5.9	2.8	-3.1
수입 증가율	2.6	2.6	0.0	5.9	3.3	-2.6
순수출 증가율	-1.1	-0.3	0.8	0.4	0.0	-0.4
소비자물가 상승률	0.8	0.7	-0.1	1.8	1.6	-0.2
실업률	3.6	3.7	0.1	3.5	3.5	0.0
경상수지/GDP	7.0	7.3	0.3	6.6	6.3	-0.3

-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2015년의 확대재정정책은 2016년에도 추가적 조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물가상승률도 목표치인 2.5%~3.5%를 크게 하회하기 때문에 정책금리 인하의 여지도 충분하다고 언급함. 한편, 급격한 인구고령화 상황 속에서 잠재성장률을 유지하고 좀 더 포용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책 우선순위를 2014년에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구조개혁에 두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함

○ 함의 및 전망

- 한국경제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설명과 분석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됨. 6월의 보고서(이슈 1)에서 제시한 2015년 및 2016년 한국경제 전망치보다 5개월 후인 금번 보고서(이슈 2)에서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수출증가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장래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임
- 한편, 「OECD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제시한 한국과 주요 해외 국가들(심각한 재정수지 악화를 겪고 있는 PI(I)G(G)S 포함)의 경제 상황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잠재 GDP 성장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한국과 그리스만 예외적으로 하회하고 있음. 이는 실업률 자료를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아래의 표를 통해 비교한 국가들 중 PIGS 국가를 제외하면 한국만이 자연실업률을 상회하는 실업률을 보이고 있음
- 더욱 문제시 되는 부분은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부문임. 아래의 표에서 제시한 비교국가들 중 한국의 가계부채는 PIIGS 국가인 아일랜드와 스페인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고 기업부채는 스페인만 한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한국경제는 가계와 기업들이 심각한 부채 부담으로 인해 향후 경제의 취약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음
- 이처럼, 한국경제는 수출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비교국가 중 독일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고용 및 경제성장은 잠재 수준을 밑도는 결과를 보이고 있어 국내의 수요 및 공급능력을 키우는 한편 경제주체 3부문(가계·기업·정부)의 부채 관리 및 감축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으로 판단됨

한국 및 해외 국가의 경제 상황 (단위: %)

	잠재GDP성장률 -실제GDP성장률*		실제 실업률 - NAIRU**		경상수지적자 / GDP		가계 부채 / 총처분가능소득		기업부채*** / GDP	
	6월 전망	11월 전망	'14 4/4	'15 3/4	2014년	2015년	2013년	2014년	2013년	2014년
한국	0.6	0.6	0.0	0.3	-6.4	-7.3	160.0	164.2	151.3	166.5
미국	-0.1	-0.8	0.3	-0.3	2.4	2.5	110.1	109.7	114.4	113.2
일본	-0.2	-0.2	-0.6	-0.5	-0.5	-3.3	132.6	132.6	160.9	160.9
독일	-0.5	-0.3	-0.6	-0.4	-7.8	-8.3	94.8	93.6	70.5	71.2
프랑스	0.2	0.0	0.8	0.8	1.0	-0.2	108.1	104.9	103.4	101.5
영국	-0.3	-0.5	-0.5	-0.3	5.5	4.0	146.6	155.7	87.3	113.6
포르투갈	-1.3	-1.4	1.5	0.4	-0.6	-0.6	144.1	138.5	153.0	145.6
그리스	0.1	0.9	8.7	7.7	-0.9	0.3	104.0	117.4	76.3	73.6
이태리	-0.5	-0.8	3.9	3.2	-1.8	-1.5	79.6	77.2	91.7	89.8

아일랜드	-1.8	-3.5	-0.5	-1.5	-6.2	-3.6	223.0	197.4	235.9	236.9
스페인	-2.5	-2.7	5.2	3.0	-0.8	-6.0	140.1	173.1	142.1	131.4

* 2015년 기준

** NAIRU(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 물가상승을 가속하지 않는 실업률. 통상 자연실업률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함

*** 기업은 비금융 기업임.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는 가장 최근에 이용가능한 자료임

※ 참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 (2014.3.5.)

추진전략	9+1 과제	세부 실행과제(59개)
기초가 튼튼한 경제 (15개)	공공부문 개혁 (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비리근절 등 공공기관 개혁 ■ 보조금 및 지역연금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소기업 불공정관행 개선, 상가 권리금 보호, 노동시장 개선,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
	사회안전망 확충 (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혁신 과정에서 뒤처질 수 있는 이들을 위한 보호망 강화
역동적인 혁신경제 (25개)	창조경제 구현 (1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확산 등 ■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 창업→중소기업 경영애로 및 중소→중견기업 경영애로 해소 ■ M&A 활성화 ■ 융합 신산업 육성 등
	미래대비 투자 (7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총량확대, 해외 우수인재 유치 등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안착, 안정적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등
	해외진출 촉진 (7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적 FTA 활용 극대화 ■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온라인 쇼핑 수출시장 창출, 해외건설·플랜트 수출 고부가가치화 등
내수·수출 균형경제 (18개)	내수(소비)기반 확대(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부채 구조개선, 주택매매시장 정상화, 임대시장 안정, 사교육비 부담 완화
	투자여건 확충 (1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개혁 시스템 정립 ■ 보건의료·교육·관광·금융·소프트웨어·콘텐츠 등 유망서비스업 육성 ■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고용 활성화, 여성고용 활성화 등
통일시대 준비(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시대 준비

□ [금융] 한국은행, 다섯 달째 기준금리 동결

○ 11.12.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보도자료

○ 주요 내용

- 한국은행은 11월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 통화정책방향결정시까지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에서 유지하기로 함. 주요하게 다음의 사항들이 고려된 것으로 보임
- 미국은 “회복세 지속”, 유로지역은 “완만한 개선 움직임”, 중국 등 신흥시장국 성장세는

“계속 둔화”로 관측하였음, 이에 반해 국내 여건은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며, “내수가 회복세를 이어갔으나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봄

- 특히 고용면에서 “취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실업률이 전년동월대비 하락하였으며 고용률은 전년동월과 같은 수준”으로 봄. 10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 0.6%에서 0.9%로 높아”졌으며,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오름세가 이어졌다고 보고 있음
- 한편,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을 밝혔음

○ 함의 및 전망

- 금융통화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지난 달 통화정책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대내외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경제상황 변화 등 대외 여건 등이 중요해 보이며 또한 다음 달로 점쳐지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가 마련되어야 하겠음
- 11월 9일 전 미 연준 의장 벤 버냉키는 (브루킹스 연구소 자신의 블로그에) 12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뚜렷한 가능성(a distinct possibility)”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음

□ [산업] TPP 협정문 공개, 각 경제주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한 검토 필요

○ 11.05.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 공개」

○ 주요 내용

- 우리시각 11월5일 오후 TPP 협정문이 뉴질랜드 등 TPP 참여국 정부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됨
- TPP 협정문은 총 30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장접근과 규범분야 모두 전반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 ※ 한·미 FTA(24개 챕터)에 없는 추가 내용: 국영기업, 협력 및 역량 강화,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 개발, 중소기업, 규제조화 등
- 정부는 TPP 협정문 공개에 따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범부처 「TPP 협정문 분석 T/F」를 즉시 가동하여 세부 상품 및 서비스·투자 분야 양허결과, 우리의 기체결 FTA와의 비교, 새롭게 도입된 규범들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해 나갈 계획임

○ 함의 및 전망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이 TPP에 참여하게 될 경우 서비스·투자 시장 및 정부조달 시장 개방폭 확대, 지재권, 전자상거래 등 규범 및 제도 통일·선진화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의 수출과 투자 진출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
- 여타의 무역자유화 조치와 마찬가지로 TPP 역시 우리 경제 내 각 분야에 대한 영향은 상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공개적인 논의를 충분히 거쳐 향후 TPP 가입여부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자간 무역자유화 논의에 대응해야 할 것임

□ [지역경제] 제주시 제2공항 사전검토결과 발표

○ 11.10. ‘제주 서귀포 신산리에 제2공항 건설 추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외)

○ 주요 내용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귀포 신산리 지역에 제 2공항 건설이 추진될 예정임
- 최근 제주지역은 국내 여행객과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와 더불어 저비용 항공시장의 활성화로 인하여 비행기표를 구하기 어렵고 탑승통로 및 발권대기줄이 끊기지 않을 정도로 혼잡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
- 2014년 2300만 명이 제주공항을 이용했으며 이착륙 횟수는 14.5만 회로, 2018년에는 17만 회를 초과하여 공항 이용 한계치에 육박할 전망이다
- 이에 국토부는 ① 기존 제주공항 확장 방안, ② 제주공항 운영중지 및 대규모 신공항 건설 방안, ③ 제주공항 유지 및 제2공항 건설 방안을 검토하여, ③안으로 결정하였음
- 공역·기상·환경·소음·장애물 등 5가지 요소에 대해 ‘합격·불합격’ 방식으로 평가한 후 여러 후보지를 10개로 좁히고, 이에 대해 10점 척도법을 사용하여 평가하여 신산리가 최종 낙점됨
- 소음대책이 필요한 가구의 규모와 자연훼손 우려가 모두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에 더해, 제주공항 확장비용(9.4조원)과 비교하여 훨씬 적은 공사비(4.1조원)가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었음
- 현 제주공항의 1.5배인 150만평 규모로 예상비용은 4.1조원(수용능력 연간 2500만명)이며, 예비타당성조사, 설계, 공사시행 등의 절차를 통해 2025년 이전 개항을 목표로 함
- 제 2공항 주변은 물류, 휴양, 연구개발 시설이 들어서는 ‘에어시티’로 개발될 예정이며, 7년의 공사기간동안 약 2.1조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11월11일 중앙일보 기사일부 인용)



<그림> 제주 제2공항의 예정입지 및 제주공항 이용자의 현황 및 전망

○ 함의 및 전망

- 내수와 수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실태를 볼 때 관광산업 육성은 필수적이며, 핵심 관광지 중 하나인 제주도 신공항 개발은 관광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임
- 제주 제2공항 신설은 이미 포화상태인 제주공항의 인프라 현황과 급증하는 제주시 항공수요를 살펴볼 때 시급한 지역과제로, 지난 25년 간 논의가 계속되어오던 지역숙원사업이었음
- 하지만 아직 지역주민들과 협의과정이 남아있고 예산확보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데, 원희룡 제주지사는 연말 착수 예정인 예비타당성 조사 생략 또는 축소 등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2023년 공항 개항을 목표한다고 선언함
- 실제 땅 주인이 60% 이상 외지인일 것이라는 추정이 있어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많은 제주도 주민에게는 이익보다 피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으므로, 전폭적인 협력을 이끌기 위해서는 주민의 갈등과 불편 사항에 대해 세심한 대처가 필요함